



A Study on the Gender Differences in the Use of Smart Media and SNS Fatigue of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on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s and Learning Flow

Namin Shin¹, Eun-Young Choi²

¹*Department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²*College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if gender has any impact on the use of smart media and SNS fatigue of university students while analyzing its effects in mode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fatigue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s and learning flow. Data were collected from 267 students from 4-year university located in Seoul and Pusan(male 60.3%), and analyzed by means of t-tes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following: First, female students spent more time in using smart media than did male students; Second, the frequency of using smart media per day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male students compared to female students. Third, female students were found out to feel more SNS fatigue than male students; Fourth, female students also showed higher score in the variable of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s than did male students; Fifth,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on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s via SNS fatigu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ing that female students who felt high degree of SNS fatigue were more vulnerable to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s than the case of male students. Lastly,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 was not found ou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fatigue and learning flow. In summary, this study showed the plausibility of female students spending more time on smart media, feeling more SNS fatigue, and finally procrastinating academic work more than did male studen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at gender should be considered at first whe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plan to provide intervention programs for their students to prevent them from the overuse of smart media and suffering from SNS fatigue.

© 2020 KKITS All rights reserved

KEYWORDS : Smart media, Gender, University students, SNS fatigue,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s, Learning flow

ARTICLE INFO: Received 21 July 2020, Revised 5 August 2020, Accepted 10 August 2020.

*Corresponding author is with the College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05029, KOREA.

E-mail address: caeaya@konkuk.ac.kr

1. 서론

본 연구는 SNS 피로감과 대학생의 학업지연 행동 및 학습몰입의 관계에 관한 이전 연구의 후속 연구이다[1]. 이전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대학생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이 주는 피로감, 즉 SNS 피로감이 학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학업지연 행동과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SNS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학생일수록 학업지연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SNS 피로감이 학습몰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학습몰입에는 스마트미디어 1회 사용시간보다 1일 사용빈도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연구의 제한점 가운데 하나가 성별과 같은 개인차 변인을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였다.

미디어 연구자들은 SNS와 학업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연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3]. 예를 들어, SNS의 문제적 사용(예, SNS 중독 등)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고 밝히는 연구도 있고, 여성이 SNS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4,5]. 스마트미디어 사용과 학업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성차가 쟁점이 되고 있다. 즉, 여학생의 경우는 페이스북(Facebook)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학습동기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가져왔다[6]. 이런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성별에 따라 SNS 피로감과 학업 간의 관계 역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SNS 피로감과 학업 간의 관계를 좀 더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성차에 따라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횟수, SNS 피로감에 있어 차이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스마트미디어 사

용시간 및 횟수, SNS 피로감이 학업지연 행동과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이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에 있어 성차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스마트미디어 사용횟수에 있어 성차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SNS 피로감에 있어 성차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및 사용횟수, SNS 피로감이 학업지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이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5.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및 사용횟수, SNS 피로감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이 조절하는가?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2.1 미디어 사용에서의 성차

초기 미디어 사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미디어 사용시간이 더 길다고 주장해왔지만[7], 최근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미디어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문자중심의 멀티태스킹과 음악중심의 멀티태스킹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그리고 성별에 따른 시간대별 미디어 이용의 집중도는 남성과 여성의 생활패턴의 차이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0].

SNS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큰 사회연결망을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친

구요청을 받고 이에 대해 승낙하는 수준도 더 높다고 한다[11]. 이러한 넓은 사회적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이들과 상호작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 성별에 따른 미디어 이용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 남성은 주로 비즈니스를 위해, 여성은 주로 사회적 관계를 위해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즉, 성별에 따라 미디어 사용의 주된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2.2 학업지연 행동 및 학습몰입에서의 성차

학업지연 행동과 학습몰입은 서로 부적인 관계에 있는 변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변인이기도 하다[13]. 학업지연 행동이란 학습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행동이며[14], 학습몰입이란 학습활동 중 즐거움과 흥미를 가지고 시간이나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며 학습에 몰두하는 상태를 말한다[15].

많은 연구들이 학습 행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특징에 주목해왔다[16,17,19]. 예를 들어,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노트필기, 환경구조화, 목표설정 등의 학습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반면, 남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해 주의 집중을 포함하여 행동조절 전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 그러나 성별에 따른 학업지연 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일관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예컨대, 어떤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업지연 행동이 더 빈번히 나타났지만[18],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학업지연 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19].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학업지연 행동의 성차가 확인되지 않기도 하였다[20].

2.3 SNS 피로감에서의 성차

SNS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는 여러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SNS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21],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22], 더 많은 메시지를 보낸다. 이처럼 SNS의 중독적 사용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23], 매체 사용에 소비하는 시간 역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SNS를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24] 연구 집단과 SNS 사용 목적과 유형에 따라 성차는 다른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25].

SNS 피로감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영역이다.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SNS 피로감과 관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SNS 피로감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6]. 그러나 기존 성차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성차가 SNS 피로감 자체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SNS 피로감과 학업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4와 5에서 성별 변인이 SNS 피로감과 학업지연 행동 그리고 학습몰입 변인에 조절효과를 가져오는지를 각각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부산에 소재한 4년제 대학 3개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28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에 대해서는 이전 연구[1]에 보다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전체 데이터 중 무용

답 및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267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의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정보
Table 1. Informa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구분	빈도수(명)	구성 비율(%)	
성별	남	161	60.3
	여	106	39.7
계열	인문사회	148	55.4
	자연이공계	119	44.6
학년	1학년	63	23.6
	2학년	82	30.7
	3학년	58	21.7
	4학년	64	24.0
총	267	100.0	

3.2 연구도구

가.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및 사용횟수

본 연구에서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은 ‘스마트미디어를 1회 평균 이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5점 척도로 ‘10회 미만(1)’, ‘10회 이상(2)’, ‘20회 이상(3)’, ‘30회 이상(4)’, ‘40회 이상(5)’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였다. 스마트미디어 사용횟수는 ‘스마트미디어를 1일 평균 이용하는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의 질문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1분’에서 ‘100분’ 사이에 응답하였다.

나. SNS 피로감

SNS 피로감은 이서윤과 김정현(2016)이 Michelsen 등(1993)의 FAS(Fatigue Assessment

Scale)을 번안하여 카카오톡에 맞게 재구성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27,28]. 본 연구에서는 5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Cronbach α 는 .83으로 나타났다.

다. 학업지연 행동

학업지연 행동은 서은희(2006)가 Aitken(1982)의 지연행동 척도를 번안한 학업적 지연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29,30]. ‘나는 매일 규칙적으로 과제를 함으로써 기한에 늦지 않도록 한다.’ 등의 17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 α 는 .82였다.

라. 학습몰입

본 연구에서 학습몰입은 김아영, 탁하얀, 이채희(2010)의 성인용 학습몰입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31]. 전체 29문항 중 ‘나는 공부하는 동안 시간이 매우 빠르게 흐르는 것 같다.’ 등의 1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 α 는 .94로 나타났다.

3.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2.0을 활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각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에 따른 각 변인들의 평균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및 사용횟수, SNS 피로감이 학업지연 행동과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이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분석

4.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측정변인 간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값은 <표 2>와 같다. 성별과 관련된 상관분석을 살펴보면 여학생일수록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r=.15, p<.05$)과 SNS 피로감($r=.25, p<.001$), 학업지연 행동($r=.15, p<.05$)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일수록 스마트미디어 사용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13, p<.05$).

표 2.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①	②	③	④	⑤	⑥
①성별(1=여)	1					
②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150*	1				
③스마트미디어 사용횟수	-.126*	-.146*	1			
④SNS 피로감	.249***	-.022	-.051	1		
⑤학업지연 행동	.149*	.004	.033	.175**	1	
⑥학습몰입	.013	-.049	-.173**	-.093	-.317***	1
평균	.60	23.29	3.67	1.96	2.75	2.84
표준편차	.49	23.58	1.14	.75	.63	.68
왜도	-.42	1.68	-.39	.86	-.20	.31
첨도	-1.83	2.23	-.82	.67	-.01	.45

* $p<.05$, ** $p<.01$, *** $p<.001$

4.2 성별에 따른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및 사용횟수, SNS 피로감 차이 검증

<표 3>은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학습몰입($t=-.197, p>.05$) 변인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t=-2.471, p<.05$)과 사용횟수($t=-2.069, p<.05$), SNS 피로감($t=-4.193, p<.001$) 그리고 학업지연 행동($t=-2.358, p<.05$)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스마트미디어 1회 사용시간

은 여학생($M=26.16, SD=23.26$)이 남학생($M=18.93, SD=23.5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NS 피로감도 여학생($M=2.11, SD=.76$)이 남학생($M=1.73, SD=.67$)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업지연 행동도 여학생($M=2.83, SD=.62$)이 남학생($M=2.64, SD=.6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스마트미디어 사용횟수는 남학생($M=3.85, SD=1.13$)이 여학생($M=3.56, SD=1.1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Table 3. Gender differences of major variables

	남학생(n=106)		여학생(n=161)		검정통계량	집단 간 비교
	M	SD	M	SD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18.93	23.51	26.16	23.26	-2.471*	남<여
스마트미디어 사용횟수	3.85	1.13	3.56	1.13	2.069*	남>여
SNS 피로감	1.73	.67	2.11	.76	-4.193***	남<여
학업지연행동	2.64	.63	2.83	.62	-2.358*	남<여
학습몰입	2.83	.68	2.85	.68	-.197	-

* $p<.05$, ** $p<.01$, *** $p<.001$

4.3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및 횟수, SNS 피로감과 학업지연 행동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1단계 분석결과, 성별,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및 사용횟수, SNS 피로감은 학업지연 행동의 4.5%를 설명하였다($F=2.817, p<.05$). SNS 피로감이 높을수록 학업지연 행동의 수준은 유의하게 높았으며($\beta=.14, p<.05$), 성별($\beta=.12, p>.05$)과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beta=-.01, p>.05$), 스마트미디어 사용횟수($\beta=.06, p>.05$)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2단계에서 성별과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및 사용횟수, SNS 피로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 변인과 SNS 피로감의 상호작용 항을

만들어 모형에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전체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3.128, p<.01), 학업지연 행동의 8.4%를 설명해 주었다. 또한, 성별과 SNS 피로감의 상호작용항($\beta=.30$,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고).

표 4. 학업지연 행동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s

	모형1			모형2		
	B	β	t	B	β	t
성별(1=여)	.16	.12	1.86	-.88	-.69	-2.76**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00	-.01	-.18	.00	-.14	-1.47
스마트미디어 사용횟수	.03	.06	.87	.10	.17	11.76
SNS 피로감	.12	.14	2.14*	-.04	-.04	-.40
성별X미디어사용시간				.01	.17	1.81
성별X미디어사용횟수				-.03	-.32	-1.46
성별XSNS 피로감				.23	.30	2.03*
R ²	.045			.084		
F	2.817*			3.128**		
df	(4,241)			(7,238)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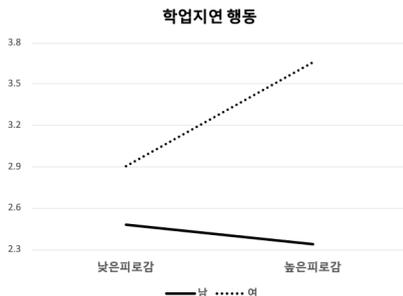


그림 1. SNS 피로감과 학업지연 행동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Figure 1.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fatigue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s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항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SNS 피로감이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여 <그림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의 경우 SNS 피로감이 높을수록 학업지연 행동수준이 높아지는데 반해(t=2.905, p<.01) 남학생의 경우는

SNS 피로감 수준에 따른 학업지연 행동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t=-.398, p>.05).

4.4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및 횟수, SNS 피로감과 학습몰입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1단계 분석결과 성별,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및 사용횟수, SNS 피로감은 학습몰입의 4.5%를 설명하였다(F=2.712, p<.05). 그리고 스마트미디어 사용횟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의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8$, p<.01).

2단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전체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F=2.70, p<.05), 성별의 조절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표 5>.

표 5. 학습몰입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learning flow

	모형1			모형2		
	B	β	t	B	β	t
성별(1=여)	.03	.03	.36	-.35	-.25	-.97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00	-.07	-1.07	.00	.03	.33
스마트미디어 사용횟수	-.11	-.18	-2.79**	-.16	-.27	-2.65**
SNS 피로감	-.09	-.10	-1.55	-.06	-.07	-.62
성별X미디어사용시간				-.01	.14	-1.40
성별X미디어사용횟수				.02	.24	1.08
성별XSNS 피로감				-.04	-.05	-.31
R ²	.045			.060		
F	2.712*			2.070*		
df	(4,230)			(7,227)		

*p<.05, **p<.01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스마트미디어 사용 및 SNS 피로감, 학업지연 행동, 학습몰입에서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성별이 SNS 피로감과 학업지연 행동 및 학습몰입에서 가져오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남녀 대학생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행태 및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첫째,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SNS 피로감, 학업지연 행동에서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는 1일 사용 빈도가 여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여학생과 남학생의 SNS 사용 목적의 차이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들은 실제 의사소통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때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SNS를 사용하는 반면, 남학생들은 실제 의사소통이 부족할 때 SNS를 사용한다고 한다[25]. 남성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SNS를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는 연구도 이러한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32].

둘째, 학업지연 행동의 수준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지연 행동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업지연 행동 수준이 높다는 선행 연구결과[18]와 일맥상통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업지연 행동의 성차가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도 이견이 있다[18,19,20]. 학업지연 행동의 원인도 성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Özer, Demir, 그리고 Ferrari(2009)의 연구에서 남학생은 반항심으로 인해 학업지연 행동이 발생되지만 여학생의 경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게으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성별에 따른 학업지연 행동의 원인과 그 차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의 학업지연 행동에 대한 개입이 성별에 따라 다른 접근을 취해야 하는지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성별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여학생의 경우 SNS 피로감이 높아질수록 학업지연 행동이

더 많이 발생하였으나, 남학생의 경우 SNS 피로감 수준에 따른 학업지연 행동에는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SNS 피로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SNS를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피로감이 학업지연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정신적 소진(burnout)에 있어서 남녀 간 차이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서적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하고, 남성은 여성보다 더 몰개성화(depersionalized)되는 경향이 있었다[33].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여학생은 정서적 소진과 SNS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를 사용하여 학업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학습몰입에 대한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및 횟수, SNS 피로감과 성별 간의 조절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학습에 있어 학습몰입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34]. 그러나 학습몰입의 전체 9개 하위유형 중 과제집중과 자의식 상실에서 성차가 확인되었다는 연구[35]를 고려하면, 해석에 있어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있어서의 성차 및 SNS 피로감과 학업 간의 관계를 학업지연 행동과 학습몰입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 간의 관계에서 성별인이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밝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에서 측정된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과 사용횟수에 대한 자료는 자기보고 형식이므로 실제와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추후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하지 않으면서도 좀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해당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데이터는 서울과 부산의 3개교에 재학 중인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비교적 제한된 표집이므로 이 결과를 국내의 모든 대학생으로 일반화 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응답자의 성비가 남학생이 60.3%로 여학생보다 10% 정도 높았다. 이런 결과가 성차를 살펴 본 본 연구의 주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표집 시 성별 분포를 좀 더 1:1에 가깝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학업지연 행동과 학습몰입 간의 관계를 함께 탐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관계가 과소 추정되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단일한 분석에서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여학생이 더 피곤함을 느끼고 더 많은 학업지연 행동을 일으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학생의 스마트미디어 및 SNS 사용에서의 부작용 예방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성별에 따른 좀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References

- [1] E-Y. Choi, and N-M. Shin,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fatigue and university students' behavior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learning flow*. Journal of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and Systems, Vol. 15, No. 3, pp. 373-382, 2020.
- [2] T. Doleck, and S. Lajoie, *Social networking and academic performance: A review*.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Vol. 23, No. 1. pp. 435-465, 2018.
- [3] S. Davenport, S. Bergman, J. Bergman, and M. Fearington, *Twitter versus Facebook: Exploring the role of narcissism in the motives and usage of different social media platform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32, pp. 212-220, 2014.
- [4] A. Acar,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online social networking behavior: The case of Facebook*. Journal of Website Promotion, Vol. 3, No. 1/2, pp. 62-83, 2008.
- [5] N. Haferkamp, S. C. Eimler, A. M. Papadakis, and J. V. Kruck, *Men are from Mars, women are from Venus? Examining gender differences in self-presentation on social networking site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Vol. 15, No. 2, pp. 91-98, 2012.
- [6] B. Janković, M. Nikolić, J. Vukonjanski, and E. Terek, *The impact of Facebook and smart phone usage on the leisure activities and college adjustment of students in Serbia*.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55, pp. 354-363, 2016.
- [19] B. U. Özer, A. Demir, and J. R. Ferrari, *Exploring academic procrastination among Turkish students: Possible gender differences in prevalence and reason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49, No. 2, pp. 241-257, 2009.
- [7] J. Morahan-Martin, and P. Schumacher, *Incidence and correlates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among college stu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16, pp. 13-29, 2000.
- [8] H-O. Jeon, *Effects of academic emotions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n SNS addiction tendency by gender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6. pp. 269-277, 2016.
- [9] M-K. Choi, *Exploring the relationship*

- between the time perspective and the use of media multitasking: Focusing on smart-phone users in their 20s ~50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Vol. 26, No. 3, pp. 259-290, 2018.
- [10] J-S. Yim, J-M. Yoon, and E-J. Jo, *Uses of Media across Dayparts according to Gender, Age and Weekdays/Weekend*. The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Vol. 21, No. 2, pp. 144-168, 2014.
- [11] A. Acar,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online social networking behavior: The case of Facebook*. Journal of Website Promotion, Vol. 3, No. 1-2, pp. 62-83, 2008.
- [12] A. Bianchi, and J. G. Phillips, *Psychological predictors of problem mobile phone use*.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 8, No. 1, pp. 39-51, 2005.
- [13] A. Thatcher, G. Wretschko, and P. Fridjhon, *Online flow experiences, problematic Internet use and Internet procrastina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4, No. 5, pp. 2236-2254, 2008.
- [14] L. A. Rabin, J. Fogel, & K. E. Nutter-Upham, *Academic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self-reported executive function*. Journal of Clinical and Experimental Neuropsychology, Vol. 33, No. 3, pp. 344-357, 2011.
- [15] S. A. Jackson, & H. W. Marsh,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optimal experience: The flow state scal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Vol. 18, No. 1, pp. 17-35, 1996.
- [16] B. J. Zimmerman, and M. Martinez-Pons, M. *Student differences in self-regulated learning: Relating grade, sex, and giftedness to self efficacy and strategy u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82, No. 1, pp. 51-59, 1990.
- [17] M-K, Chung. *The developmental tendency of self-regulated learning in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Gifted and Talented, Vol. 10, No. 2, pp. 79-99, 2011.
- [18] L. J. Solomon, and E. D. Rothblum,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1, No. 4, pp. 503-509, 1984.
- [19] B. U. Özer, A. Demir, and J. R. Ferrari, *Exploring academic procrastination among Turkish students: Possible gender differences in prevalence and reason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49, No. 2, pp. 241-257, 2009.
- [20] J. R. Ferrari, *Procrastination and attention: Factor analysis of attention deficit, boredom, intelligence, self-esteem, and task delay frequencie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16, pp. 185-196, 2001.
- [21] E. Christofides, A. Muise, and S. Desmarais, *Information disclosure and control on Facebook: Are they two sides of the same coin or two different processes?* Cyber Psychology & Behavior, Vol. 12, pp. 341-345, 2009.
- [22] D. Liu, and B. B. Brown, *Self-disclosure on social networking sites, positive feedback, and social capital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38, pp. 213-219, 2014.
- [23] H. Krasnova, N. F. Veltri, N. Eling, and P. Buxmann, *Why men and women continue to use social networking sites: The role of gender differences*. The Journal of Strategic Information Systems, Vol. 26, No. 4, pp. 261-284, 2017.
- [24] E. Çam, and O. Isbulan, *A new addiction for teacher candidates: Social networks*.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TOJET, Vol. 11, No. 3, pp. 14-19, 2012.

- [25] V. Barker, *Older adolescents' motivations for social network site use: The influence of gender, group identity, and collective self-esteem*.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 12, No. 2, pp. 209-213, 2009.
- [26] A. R. Lee, S. M. Son, and K. K. Ki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verload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 fatigue: A stress perspectiv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55, pp. 51-61, 2016.
- [27] H. J. Michielsens, J. De Vries, and G. L. Van Heck, *Psychometric qualities of a brief self-rated fatigue measure: The Fatigue Assessment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Vol. 43, No. 4, pp. 345-352, 2003.
- [28] S-Y. Lee, and J-H. Kim, *Interpersonal communication fatigue while communicating via mobile phone: The case of Kakao Talk use*.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Vol. 33, No. 4, pp. 255-303, 2016.
- [29] M. E. Aitken, *A Personality Profile of the College Student Procrastinator*.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1983.
- [30] E-H. Seo,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 treatment program for overcoming academic procrastination of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Yonsei, 2006.
- [31] A-Y. Kim, H-Y. Tack, and C-H. Lee,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learning flow scale for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4, No. 1, pp. 39-59, 2010.
- [32] P. Sheldon, *Student favourite: Facebook and motives for its use*. *South-western Mass Communication Journal*, Vol. 23, No. 2, pp. 39-53, 2008.
- [33] R. K. Purvanova, and J. P. Muros, *Gender differences in burnout: A meta-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77, No. 2, pp. 168-185, 2010.
- [34] D. B. Kwon, and Y. S. Hyun, *The effects of learning-related networks and trust perceived by adult learner on learning flow*.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 11, No. 2, pp. 1-20, 2015.
- [35] O. B. Kim, Y. M. Choi, H. J. Kim, C. H. Jung, and H. L. Kim, *The difference of affective characteristics and academic achievement by person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4, pp. 543-551, 2018.

대학생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SNS 피로감, 학업지연 행동과 학습몰입에 있어서 성차 및 성별 조절효과

신나민¹, 최은영²

¹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²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강사

요 약

본 논문은 대학생의 스마트미디어 사용과 SNS 피로감, 학업지연 행동과 학습몰입에 있어서 성차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SNS 피로감이 학업지연 행동과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별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부산 소재 4년제 대학에서 표집된 26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남학생 161명, 60.3%). 자료는 t 검정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미디어 1일 평균 사용횟수에 있어서는 남녀간 차이가 없었으나 스마트미디어 1회 사용시간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길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미디어 1일 사용횟수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SNS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업지연 행동 점수 역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SNS 피로감이 학업지연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성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SNS 피로감을

느끼는 여학생들은 학업지연 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남학생은 SNS 피로감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학습몰입에 대한 성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이 길고, 피로감을 더 느끼며 이러한 피로가 학습지연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이 SNS 피로감과 학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별로 다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Namin Shin received the bachelor's and M.S. degree 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92 and 1994, respectively. She received the

Ed.D. degree in the Department of Adult Education, Instructional Systems Design and Workforce Education from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in 2001. She has been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t Dongguk University since 2004. Her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distance learning, Human-Robot Interaction, ethical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motions in learning. She is a member of the KKITS.

E-mail address: naminshin@dgu.edu



Eun-Young Choi received the Ed.D. degree 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from the Konkuk University in 2019. She has been a Instructor in the College of

Education at Konkuk University since 2019. Her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cyberbullying, cyber psychology, peer relationships, school psychology. She is a member of the KKITS.

E-mail address: caeaya@konkuk.ac.kr